

한일 상사뱀(想思蛇) 설화의 비교연구*

송영숙**

(e-mail : venussys@hanmail.net)

目次

1. 글머리
 2. 한일 뱀 설화의 선행연구
 - 2.1 한국의 선행연구
 - 2.2 일본의 선행연구
 3. 한국 상사뱀 설화의 분석
 - 3.1 남성형: ①복수형, ②실패형
 - 3.2 여성형: ①복수형, ②포기형
 4. 일본 상사뱀 설화의 분석
 - 4.1 여성: 복수형
 5. 마무리
-

1. 글머리

한국과 일본의 설화에는 인간이 생전에 자신이 풀지 못한 상대에 대한 일방적인 욕망을 죽은 후에 뱀으로 몸을 바꾸어 상대에게 집요한 사랑을 강요하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일명 상사뱀 설화가 한일에서 동시에 전승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인 남녀의 욕망을 묘사한 한일 상사뱀 설화에 투영된 민중의 의도를 도출하여 한일 상사뱀 설화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일 남녀의 억눌린 욕구를 들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A07036406)

** 전남대 일본과 강사, 일본문화학 전공.

러싼 당시의 사회·문화상 및 관습 등에 대해 추론하는 과정을 병행하기로 한다.

상사뱀 설화를 세분해보면 인간인 남자와 동물인 뱀의 경우, 인간인 여자와 동물인 뱀의 경우에서 파생되는 이야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생전에 남자를 몰래 연모하던 여자가 죽은 후에 뱀으로 몸을 바꾸어서 억눌린 욕망을 펼치는 내용이다. 후자는 여자를 남몰래 사모하던 남자가 죽어서 뱀으로 변한 후에 그의 일방적인 감정을 강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사뱀 설화는 동물이 사람으로 변신하여 사람과 혼인하는 이류혼인담(異類婚姻譚)과는 확연히 구별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류혼인담에 등장하는 동물은 인간과 혼인하기 위하여 자의에 의해 인간으로의 변신을 꾀한다. 즉 동물은 인간과의 통혼(通婚)을 위해 먼저 인간으로 변신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류혼인담의 주인공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¹⁾ 반면에 상사뱀 설화는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연모하던 인간이 죽은 뒤에 결국에는 맹목적인 사랑의 화신(化身)인 상사뱀이 되어 생전에 이루지 못한 자신의 정념을 죽은 후에도 상대에게 집요하게 강요한다.

상사뱀 설화는 인간과 뱀의 공생의 단면을 그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인 남녀의 애정에 관한 내용을 인간과 뱀이라는 상징적인 매개체를 통하여 표현한 것이다. 상사뱀 설화에 대한 분석은 인간과 뱀과의 다양한 공생관계를 조명하는 한 축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논문의 첫 번째 목적은 한일 상사뱀 설화의 유형을 분석하여 특징을 도출하는데 있다. 특히 억압된 욕망의 화신으로 상징되는 상사뱀 설화의 비교연구는 한일 남녀의 욕구가 설화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영되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설화를 향유하던 당시의 사회적인 제도 및 사상, 인습 등을 유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목적은 각 유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일의 억압된 사랑의 표현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한일 상사뱀 설화의 특성에 대해 비교 분석을 병행하기로 한다.

이 논문의 주된 비교 대상은 한국은 『한국구비문학대계(韓國口碑文學大系)』(총82권), 일본은 『일본의 민담(日本の民話)』(총26권)과 『일본석화대성(日本昔話大成)』(전12권) 등에 수록된 상사뱀 설화이다. 이외에 일본의 설화 자료는 상사뱀 설화의 원형(原型)으로 여겨지는 『곤자쿠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의

1) 필자의 확인에 의하면 『日本の民話』(全26巻)에 채록되어 있는 이류혼인담에 관한 이야기는 뱀 34화, 원숭이 13화, 말 2화, 멧돼지 2화로 총 51화에 이른다.

『紀伊國道成寺僧法話求蛇』 등의 내용을 동시에 살펴보기로 한다.

설화를 분석하는 방법은 한일 상사뱀 설화를 유형별로 추출한 후에 각 유형의 특징에 대한 의미를 도출하기로 한다.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은 구조주의적 방법과 분석심리학적 방법을 동시에 원용하기로 한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한일 상사뱀 설화의 비교연구이다. 이 연구를 계기로 한일 남녀의 욕망을 묘사한 설화를 좀 더 발굴하여 설화에 나타나는 한일 남녀의 애정관에 대한 비교분석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2. 한일 뱀 설화의 선행연구

2.1 한국의 선행연구

박종성(1991)은 상사뱀 설화의 파생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뱀이 인간과는 현실적으로 성적 결합이 불가능하지만 뱀을 한때 신적인 존재로 여긴 신성혼(神聖婚)의 잔존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논하였다.²⁾ 고대 신화의 세계에서 사신(蛇神)과 인간은 신성혼의 결합을 이룬 적이 있었으며, 사신의 성적(性的)인 형상화와 사신으로서의 외경감이 극대화되면서 상사뱀 유형의 설화가 파생된 것으로 보았다.

강진옥(2000)은 상사뱀 설화의 다양한 유형과 양상을 분류하고 사람이 뱀으로 변하는 성별에 주목하여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이분했다. 남성형은 <상사풀이형>과 <상사뱀 퇴치형>으로, 여성형은 <미혼형>과 <기혼형>으로 구분하였다. 나아가 각각의 유형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시도하여 남성과 여성의 억압된 욕망의 표출방식에 대해 심리적인 분석 및 당시의 사회상을 유추하였다.³⁾ 다양한 상사뱀 설화가 파생된 경위를 일차적으로 남녀 간의 애정에 대한 의사소통의 부재를 결론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해결점에 대한 실마리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상사뱀 설화에 대한 연구의 의의를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

김용덕(2000)은 상사뱀 설화에서 뱀으로 몸을 바꾸는 주체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이 경우 상사뱀은 생전에 연모했던 여성을 휘감고 양자가 함께 죽는 비극적인 결말에 이른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여자

2) 박종성(1991), 『사신(蛇神) 설화의 형성과 변이』, 국문학연구 제10집,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문학 연구회

3) 강진옥(2000), 『상사 뱀 설화의 ‘몸 바꾸기’를 통해 본 욕망과 규범의 문제』, 『고전문학연구』제18집, 한국고전문학회, pp.115~148

가 뱀으로 변하는 경우는 인물 설화와 결합하여 남자의 성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이 또한 남녀가 함께 죽음에 이르는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결론지었다.⁴⁾ 이외에 하성혜(1990)⁵⁾의 뱀설화 연구와 우원제(2004)⁶⁾의 상사뱀에 대한 연구도 주목을 끈다.

2.2 일본의 선행연구

뱀설화와 관련된 일본의 선행연구는 야래자(夜來者) 및 이류혼인을 모티프로 하는 설화에서 매우 진척되었다.⁷⁾ 먼저 다사카 마사노리(田阪正則)는 일본의 고전문학에 나타나는 각 시대별로 묘사된 뱀의 사례를 예문으로 제시하며 시대에 따른 뱀에 대한 인식이 문학에 반영된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였다.⁸⁾ 여기에는 뱀이 고대에서는 신성혼(神性婚)의 대상이었지만 시대를 거듭할수록 그 위상이 쇠락되었으며, 나아가 퇴치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일본인의 시대에 따른 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어서 다사카 마사노리는 일본의 도조지(道成寺) 설화와 한국의 상사뱀 설화의 비교연구를 시도하였으며,⁹⁾ 상사뱀 설화의 모티프를 <기본형>, <부도일형(夫渡日型)>, <영웅형>, <퇴치형>, <회피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기본형에 해당되는 여자가 뱀이 되는 경우에 남자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한일 상사뱀 설화의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한일의 설화에서 상사뱀으로 변하는 때의 남녀모습에 주목하였는데, 도조지 설화에 등장하는 뱀의 특징은 격렬한 분노와 애욕의 상징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반면에 한국 상사뱀 설화에 등장하는 뱀은 격렬함과 분노보다는 상대에 대한 일편단심에서 생겨난 배신감으로 인하여 원한을 품은 무념의 상징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연구는 일본인이 최초로 한일 상사뱀 설화의 성격을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일본에서 이루어진 뱀 설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민속학적인 측면과 설화 속에 등장하는 뱀 이야기에 대해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¹⁰⁾ 이에 못지않게 양국에서 야래자 설화에 대한 비교연구도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되어 다각

4) 김용덕(2000), 『淸平寺緣起說話考』, 『한양어문연구』 제6집, 한양어문학회, pp.5~32

5) 河聖惠(1990), 『뱀 說話 研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우원제(2004), 『<상사(想思)뱀 설화>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日本昔話學會(1989), 『昔話と婚姻・産育』, 三弥井書店, pp.57~73. 川森 博司(2000), 『日本説話の構造と語り手』, 大阪大學出版會, pp.66~103. 笹間良彦(1989), 『蛇物語 -その神秘と傳説-』, 第一書房 등의 연구가 주목된다.

8) 田阪正則(2004), 『日本古典文學에 나타난 蛇(뱀)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9) 田阪正則(2005), 『道成寺説話と韓國口承説話 想思蛇との比較』, 日語日文學研究 第55輯, pp.68~82

10) 石上七靉(2003), 『十二支の民俗伝承』, おうふう, pp.93~109. 井本英一(2000), 『十二支動物の話』(子丑寅卯辰巳篇), 法政大學出版, pp.295~344. 吉野裕子(2004), 『十二支』, 人文書院, pp.137~156

적인 분석이 시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¹⁾ 하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성적욕망을 다룬 상사뱀 설화에 대한 비교연구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다. 한일 상사뱀 설화의 비교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사카 마사노리의 연구가 유일하며,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논문이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다사카 마사노리의 연구는 여자가 뱀으로 변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비교하였기 때문에 한일 상사뱀 설화 전체를 비교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 논문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에서 남자 상사뱀 설화가 많이 파생된 이유와, 여성 상사뱀 설화가 다수 등장하는 이유를 분석하여 한일의 시대적인 상황 및 역사적 배경을 추론하여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뱀은 주지하는 대로 인류문화사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동물이다. 특히 한일 상사뱀 설화의 비교연구는 한일 남녀의 원초적인 욕구에 대한 설화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겠다.

3. 한국 상사뱀 설화의 분석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등장하는 상사뱀 설화는 상사뱀으로 변하는 변신주체인 남녀에 따라 욕구표출의 방식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상사뱀 설화의 유형을 남성형(복수형, 실패형)과 여성형(복수형, 포기형)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양상을 기술하기로 한다.

3.1 남성형

남성이 사후에 뱀으로 변하여 생전에 일방적으로 연모했던 여성에게 찾아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내용이다. 상대여성의 반응 양상에 따라 <복수형>과 <실패형>으로 구분된다.

① <복수형>

이 유형은 남성이 생전에 품은 욕구를 풀지 못하고 죽은 후에 뱀으로 변하

11) ①한국: 崔仁鶴 著(1994), 『韓國民譚의 類型 研究』, 仁荷大學校出版部, pp.131~177. 황패강(1996), 『日本神話의 研究』, 지식산업사, pp.135~164. 이현홍(2004), 『일본문화 접촉과 한국문학』, 한국문화회 엮음, 세종출판사, pp.32~63. ②일본: 日本昔話學會(1989), 『昔話と婚姻・産育』, 三弥井書店, pp.57~73. 川森 博司(2000), 『日本説話の構造と語り手』, 大阪大學出版會, pp.66~103

여 상대 여성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아 마침내 여성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내용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한으로 구렁이 된 사람>(6-11권)을 비롯하여 총 18편이 채록되어 있다.¹²⁾ 이 중에서 제5-1권, <과부를 짝사랑하다 죽은 총각이 구렁이가 되다>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1]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는 이웃에 인물이 매우 좋은 과부가 살고 있었다. 아들은 그 과부를 짝사랑하게 되었으나,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끄끙 앓기만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과부에게 찾아가 자신의 아들이 상사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니 한번만 만나달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그 과부는 선선히 머지않은 날에 아들에게 가보겠다고 하였고,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했다. 그때까지 병석에 누워있던 아들은 이 말을 듣고 얼굴에 생기가 돌면서 일도 잘하게 되었다. 하지만 후에 과부가 아들을 찾아와 자신에게 어떻게 감히 연정을 품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느닷없이 얼굴을 후려치며 면박을 주었다. 아들은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마침내 죽어서 뱀이 되었다. 그리고 자신을 면박 주었던 과부를 찾아가서 온몸으로 칭칭 휘감더니 결국 함께 죽고 말았다.¹³⁾

[사례 1]은 총각이 이웃에 살던 과부를 짝사랑하다가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 뱀이 된 후에, 생전에 연정을 품었던 과부를 찾아가 온몸으로 휘감고 함께 죽는다는 서사구조이다. 이야기를 단락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a. 이웃에 사는 과부를 사모하는 총각이 있다.
- b. 과부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나 총각은 면박을 당한다.
- c. 총각이 앓다가 죽어서 상사뱀이 된다.

12) ①<청평사 전설>(2-2권, pp.8~14), ②<청평사 전설>(2-2권, pp.710~711), ③<과부를 짝사랑하다 죽은 총각이 구렁이가 되다>(5-1권, pp.160~162), ④<한으로 구렁이 된 사람>(6-11권, p.622), ⑤<갑장산 상사바위 전설>(7-8권, pp.226~228), ⑥<총각 상사뱀>(7-13권, p.267), ⑦<상사바위>(8-1권, pp.226~228), ⑧<능포 상사바위>(8-2권, p.140), ⑨<상사바위>(8-3권, pp.351~352), ⑩<상사바위>(8-4권, pp.226~228), ⑪<중병 걸린 중>(8-5권, pp.166~167), ⑫<상사풀이>(8-9권, pp.714~715), ⑬<상사뱀>(8-9권, pp.1061~1063), ⑭<상사바위>(8-11권, p.470), ⑮<상사뱀>(8-14권, pp.97~98), ⑯<상사바위 전설>(8-14권, pp.367~368), ⑰<상사뱀 이야기>(8-14권, p.799), ⑱<상사뱀 이야기>(8-14권). 이 중에서 ①②⑰의 공통적인 내용은 처음에는 뱀이 복수를 시도하려고 상대 여성의 몸에 밀착하여 떨어지지 않았으나, 후에 상사풀이를 해주자 순순히 밀착을 푸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다른 15종의 이야기와는 결론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밝혀둔다.

13) 『한국구비문학대계』(5-1권), pp.160~162. 제보자가 구연한 내용을 지면의 한계 상 필자가 요약하여 정리하였으며 이하의 사례문도 동일함.

d. 상사뱀이 과부의 몸을 휘감고 함께 죽는다.

[사례 1]은 남성이 생전에 자신의 일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죽은 후에 뱀으로 몸을 바꾸어 풀지 못한 욕망을 상대 여성에게 분풀이 한 후에 함께 죽는 전형적인 복수형이다. 복수형은 남성이 죽은 후에 뱀으로 몸을 바꾸는 주된 이유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며, 대부분이 여성과 함께 죽는 매우 파괴적인 서사구조가 공통적이다.

상사뱀 설화에서 상사뱀으로 변하는 남성의 인물은 사회적 계층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신분이라는 것에 시선이 집중된다.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머슴/주인집 딸’, ‘중/양반집 딸’ 등의 관계를 볼 때 이들은 신분계급이 엄격했던 사회에서 가장 신분이 미천한 단계이다. [사례 1]에 등장하는 총각 또한 과부가 총각을 찾아와서 총각의 얼굴과 같이 중요한 부위를 자연스럽게 때리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둘 사이의 신분적인 차이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과부가 양반이라면 총각은 머슴에 불과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남성은 상대 여성에 대한 연모의 감정을 드러낼 수도 없는 사회적 위치에 놓여 있었으며, 간혹 그 사실이 상대여성에게 알려지더라도 오히려 [사례 1]에서처럼 인간적인 모멸감과 수치를 당하기 마련이다.

유교를 국치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조는 반상(班常)의 사회체제가 공고히 자리 잡고 있었던 철저한 신분계급사회였다. 특히 혼인을 할 때는 계급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국법으로 계급간의 혼인을 금했다. 양반은 왕실이나 종친과는 혼인이 가능했으나 같은 양반이라도 적서(嫡庶) 간에는 혼인하지 않았으며 상민과도 혼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 조선조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윤리이념으로 작용하여 오랫동안 민중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계급간의 혼인을 금하는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종친들이 혼인할 때는 남녀의 나이, 벼슬, 집안을 기록하여 본사(本寺)에 보내면 본사에서는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성혼을 전계(傳啓)해야 하는데, 지금 종친들이 귀친을 논하지 아니하고 사사롭게 결혼을 시킵니다. 만약 금하지 아니하면 종실(宗室)이 날로 낮아질 것입니다.”¹⁴⁾

“본조(本朝)의 법에 사내종이 양가집 딸에게 장가드는 것은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나, 계집종이 양가집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남자와 여자가 금지하는 법령이 다른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양민과 천민은

14) 『조선왕조실록』, 권69, 성종7년 6월 18일, p.16

이미 類가 다른데 어찌 배필로 결합하기에 마땅하겠습니까. 대명률(大明律)에는 양민과 천민이 서로 혼인한 자는 논죄하고 강제 이혼시켜 바로 잡는다고 하였습니다.”¹⁵⁾

위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선조는 계급간의 금혼을 엄하게 준수하여 문란한 혼인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 이는 명의 율법을 따르고 유학을 숭상하여 고려조의 사회 제도를 일신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하지만 엄격한 신분제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표출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특히 [사례 1]에서처럼 하층민의 총각이 양반집의 과부를 맘에 둔다는 것은 사회의 이중적인 장벽에 부딪히는 경우이다. 첫째는 반상이라는 신분의 차이이며, 두 번째는 수절하는 과부에 대한 유교적인 관습에서이다. 총각이 수절하는 과부에게 연정을 품는 것은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정절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키길 원했던 유교적인 관습에서는 매우 용납되기 어렵다. ‘일부종사’를 표명하는 유교의 장벽은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과는 무관하게 인습을 지키며 그 틀에 안주하기를 강요한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에서 과부에게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수절이 요구되었다. 그 벽이 무너질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내쳐짐을 당하는 것은 물론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게 되었다. 그런 과부의 입장에서 자신을 연모하는 이웃집 총각은 절대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하물며 반상의 차이가 나는 상대인 총각에 대한 과부의 태도는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기에 과부는 총각을 찾아와 자신의 감정을 총각의 얼굴을 후려치는 방식으로 매몰차게 표현할 수 있었다.

결국 총각은 당시의 신분계급의 차별 및 유교적인 인습으로 인해 그의 일방적인 연정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앓다가 죽어서 상사뻘이 되고 만다. 하지만 죽은 후에 상사뻘으로 몸을 바꾼 총각은 적극적으로 그의 욕망을 과부에게 펼치게 된다. 상사뻘이 과부에게 온몸으로 밀착하는 행위는 총각이 생전에 과부에게 품었던 욕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총각이 과부에게 마음속으로만 품었던 신체 접촉을 상사뻘이 되어 과부의 몸에 대한 완전한 지배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¹⁶⁾ 나아가 정념의 화신(化身)인 상사뻘이 과부를 칭칭 말아서 죽게 만든 것은 일방적인 욕망을 표현하는 것 이상의 복수심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분계급 제도의 부당성에 대한 민중의 몸짓이 상사뻘 설화에 적극적으로 투영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남성 <복수형>에 등장하는 인물의 공통점은 생전에 사회적인 제도와 신분

15) 『조선왕조실록』, 권55, 성종14년 3월 25일, p.27

16) 강진욱(2000), 앞의 논문, pp.120~125 참조.

계급의 차별로 인해 애정 표현에 소통의 부재를 경험하고 죽은 후에 상사뱀이 되어 자신의 욕구를 표출시켰다. 상사뱀이 여성의 신체를 돌돌 마는 행위는 상대의 신체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이며, 결국에 죽음으로 까지 몰고 가는 복수심을 표현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복수형>에 등장하는 상사뱀의 행위는 신분계급의 차별에 대한 민중의 복수심과 여성의 신체에 대한 남성의 온전한 지배 및 소유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나아가 여성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극단적인 행위는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 설화에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② <실패형>

이 유형은 남성이 처녀에게 애욕을 품고 뱀(또는 구렁이)으로 변신하여 처녀에게 접근하나 처녀의 위장술에 속아서 실패하는 내용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사촌 누이 보고 구렁이가 된 총각>(7-13권)을 비롯하여 총 6편이 채록되어 있다.¹⁷⁾ 이 중에서 제8-9권, <상사뱀 이야기>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2]

중이 동냥을 하러 마을로 내려갔다가 문틈으로 내다보는 처녀를 보고 욕정을 품었다. 처녀의 남동생이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중이 누워 자는 코에서 실뱀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열린 누나에게 달려가 고쟁이를 뒤집어쓰고 화장실로 가서 대변을 보는 것처럼 앉아있으라고 일렀다. 남동생이 다시 중에게로 가보니까 중의 코에서 나왔던 그 실뱀이 점점 커지더니 집으로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처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처녀가 앉아있는 화장실 옆에서 냄새를 맡더니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후 점점 작아진 뱀은 나중에는 원래의 모습인 실뱀이 되어 다시 중의 코로 들어갔다. 그러자 중은 그제 서야 잘 잤다고 기지개를 켜며 잠에서 깨어났다.¹⁸⁾

[사례 2]는 중이 시주를 받으러 들어간 집에서 문틈으로 내다본 처녀에게 욕정을 느껴 잠시 자는 사이에 상사뱀으로 변신하여 처녀에게 접근하였으나, 처녀가 위장술을 써서 위기를 모면한다는 서사구조이다. 단락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7) ①<사촌 누이 보고 상사구렁이 된 총각>(7-13권, pp.264~226), ②<구렁이가 된 중>(8-5권, p.719), ③<상사뱀>(8-9권, pp.347~348), ④<상사뱀 이야기>(8-9권, pp.715~716), ⑤<상사 바위>(8-9권, pp.1167~1168), ⑥<상사뱀 이야기>(8-14권, pp.801~802)

18) 『한국구비문학대계』(8-9권), pp.715~716

- a. 중이 동냥을 하면서 처녀를 보고 욕정을 느낀다.
- b. 중이 자는 사이에 코에서 실뱀이 나오는 것을 남동생이 목격한다.
- c. 남동생이 누나에게 고쟁이를 뒤집어쓰고 화장실로 피하라고 조언한다.
- d. 점점 커진 뱀이 집안으로 들어가 처녀가 있는 화장실 근처의 냄새를 맡더니 집밖으로 나간다.
- e. 뱀이 점점 작아져서 실뱀이 되어 중의 코 속으로 들어가더니 중이 깨어 난다.

일반적인 상사뱀의 유형은 사람이 죽은 후에 뱀으로 몸을 바꾸는 내용이지만 [사례 2]는 중이 잠시 낮잠을 자는 사이에 상사뱀으로 변신하여 처녀에게 접근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특히 변신하는 주체가 중이며 실뱀으로의 탈혼(脫魂)과 입혼(入魂)이 매우 자유롭다는 점에서 중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주를 받는 사이에 문틈으로 내다보는 처녀에게 욕정을 느껴서 잠시 자는 사이에 실뱀으로 탈혼을 하여 그 처녀에게 다가갔던 것이다. 여기서 탈혼이란 마치 사람이 죽은 후에 상사뱀으로 몸이 바뀌는 것처럼, 자신의 의지가 아닌 수면상태인 무의식의 세계가 자신을 지배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생전의 중이라면 종교인이 지켜야하는 계율을 파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처녀에게 욕심을 낸 중의 무의식 속에는 처녀를 향한 인간적인 욕구가 솟아올랐다. 수면상태란 바로 이런 무의식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상태이며, 중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자신의 본능을 표출하였다. 특히 이 부분은 남성 인물의 주체가 중이라는 점이 부각되어 상사뱀으로의 변신이 가능하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중이 상사뱀으로 변신을 시도하나 그 모습을 처녀의 남동생이 미리 목격하게 된다. 남동생은 즉시 누나에게 달려가 고쟁이를 뒤집어 쓴 채 화장실에 앉아있으라고 조언한다. 이어서 점점 커진 실뱀이 마당으로 들어가 처녀를 찾다가 화장실에 고쟁이를 뒤집어쓴 채 앉아있는 처녀를 발견하고 그대로 집밖으로 나와 버린다. 처녀의 모습은 중이 좀 전에 훑쳐보고 애욕을 품었던 아름다웠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 얼굴의 고쟁이도 매우 이상한 모습으로 비취졌을 뿐만 아니라 장소가 악취를 풍기는 화장실이라는 점도 상사뱀이 기피하는 설정이다. 이와 같이 <실패형>은 다른 유형과는 달리 상사뱀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지를 발휘하는 내용이 특징적이다.

상사의 대상인 처녀가 ‘고쟁이’나 ‘월경한 피가 묻은 옷’을 입고 화장실에 앉아있는 설정은 부정하고 불결한 이미지를 동시에 연출한다. 그래서 자신이 연정을 품었던 상대 여성을 찾아간 상사뱀은 오히려 추하고 역겨운 이미지에 놀

라서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¹⁹⁾ 자신을 추하게 꾸민 상대 여성의 위장술에 간단히 속아 넘어 간 것이다. 이 방법은 상사뱀 설화자가 구술한 것처럼 상사뱀의 원한을 피하는 민간의 전통적인 방법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실패형>의 특징은 남성인물이 중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상사뱀으로의 탈혼과 입혼이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문밖으로 잠시 내다본 처녀에게 욕정을 품었다는 점에서 매우 즉흥적인 남성의 욕구가 강하게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중의 코에서 나올 정도로 작은 실뱀이 점점 커져서 큰 뱀이 되거나 다시 실뱀으로 작아져서 코로 기어들어간다는 내용도 남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졌다. 바꾸어 말하면 실뱀이 점점 커지는 모습은 남성성기의 특성과 매우 밀접하다.²⁰⁾ 욕망이 커질수록 남성의 성기는 상사뱀의 모습처럼 점점 커지게 되는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사뱀이 처녀의 간단한 위장술에 속는 어리석음은 설화를 향유하던 민중의 시선에서 당시의 불교계와 승려에 대한 우회적인 세태풍자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3.2 여성형

여성이 사후에 뱀으로 변하여 생전에 연모했던 남성에게 찾아가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는 유형이다. 상대남성의 신분에 따라 <복수형>과 <포기형>으로 구분된다.

① <복수형>

이 유형은 남편이 결혼직후에 일본으로 떠나버리자 시집에 남아서 기다리던 새댁이 병들어 죽은 뒤에 상사뱀으로 나타나 남편을 해코지하는 내용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죽어서 상사뱀 된 아내>(7-13권)를 비롯하여 총 3편이 채록되어 있다.²¹⁾ 이 중에서 <상사뱀>(8-9권)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3]

갓 결혼한 남편이 일본으로 건너가 돌아오지 않자 기다리던 새댁이 병이 들어 죽었다. 그 후로 시어머니가 밥을 풀려고 밥솥을 열 때마다 그 안에 뱀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뱀을 몇 번이나 태워 없앴지만 밥을 풀려고 할 때마다 밥솥에는 항상 뱀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점쟁이에게 물어보니 그 뱀은

19) 김용덕(1998), 「<相思뱀說話>의 구조분석과 의미연구」, 『한양언어문화』제18집, 한양어문학회, pp.371~373 참조.

20) 김용덕(1998), 앞의 논문, pp.371~373 참조.

21) ①<죽어서 뱀이 된 여자>(7-6권, pp.205~209), ②<죽어서 상사뱀 된 아내>(7-13권, pp.262~264) ③<상사뱀>(8-9권, pp.200~201)

며느리의 녀이라며 남편에게 보내라고 하여 그 뱀을 상자에 넣어 일본에 있는 아들에게 부쳤다. 아들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나온 뱀은 이후로 아들의 몸에서 아무리 사정을 해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아들은 상사뱀 때문에 죽고 말았다.²²⁾

[사례 3]의 내용은 남편이 결혼 직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돌아오지 않자 새댁이 병들어 죽더니 상사뱀이 된다. 상사뱀을 상자에 넣어 일본에 보냈는데, 그 상사뱀이 남편의 몸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복수형>의 내용이다. 서사구조는 다음과 같다.

- a. 남편이 결혼 직후에 일본으로 가서 소식이 없다.
- b. 기다리던 새댁이 병들어 죽는다.
- c. 상사뱀이 된 새댁은 늘 밥술에 들어가 있다.
- d. 상사뱀을 일본에 있는 아들에게 부친다.
- e. 상사뱀이 남편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아 둘 다 죽는다.

뱀은 생태학적으로 집념의 동물로 상징된다. 안으로 계속 파고들어가서 한 육신을 불사르고 그것이 한 덩어리로 응축되어 형상화된 것이 뱀이라는 것이다. 뱀이라는 동물이 손과 발이 없이 몸통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응집력을 나타내는지도 모른다. 또한 몸뚱이로 다른 대상을 감고 있는 형상이 강한 집념을 가지적으로 형상화시키는데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민담에서 상사병으로 죽는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뱀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바로 이러한 인식을 증명하고 있다.²³⁾ [사례 3]에서도 남편이 결혼 직후에 일본으로 건너가 아무런 소식조차 없자 무작정 기다리던 아내는 죽어서 상사뱀이 되었다.

상사뱀은 남편에 대한 원망은 물론이며 이를 방치한 시집에 대한 노여움의 표상이기도 하다. 밥술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출현을 알리는 상사뱀의 행위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밥술이란 한 가족의 목숨을 이어준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도구로, 그곳에서 시어머니를 대면하는 상사뱀의 출현은 매우 저돌적이며 그로테스크한 느낌마저 준다. 그 뱀을 몇 차례나 태워보았지만 밥술 안엔 변함없이 뱀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며느리가 품었던 상사의 원한이 깊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겠다.

유교적인 관습과 제도 하에서 여성은 한번 혼인을 하면 평생 ‘일부종사’해야

22) 『한국구비문학대계』(8-9권), pp.715~716

23) 김미란(1998), 『변신설화의 성격과 의미』, 황폐강선생고회기념논총, 단국대학교출판부, pp.561~562

하며 그 집안의 법도를 죽을 때까지 따라야했으므로 여성의 주체적인 삶은 좀처럼 찾기 힘든 일이었다. 따라서 여성은 자신의 의견이나 욕구를 제대로 표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늘 아웃사이더에 머물러야했다. 더욱이 [사례 3]에서처럼 남편이 결혼 직후에 일본으로 건너가 아무런 소식조차 없을 때 남편을 기다리는 새댁의 입장에서는 고된 시집살이와 더불어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편에 대한 기다림은 원망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증오심과 복수심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사람의 원한은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파멸시키는 무서운 에너지를 발산시키는데, 이는 원망과 함께하는 무의식의 소산이기도 하다. 즉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아니마(Anima)는 상처 입은 감성으로, 다른 하나인 아니무스(Animus)는 한 치의 용서도 없는 서릿발 같은 독단적 판단과 부정적 사고로 표현되게 마련이다.²⁴⁾ [사례 3]에서처럼 남편을 무작정 기다리던 새댁의 노여움은 이와 같이 마침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의 화신인 상사뱀으로 형상화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남편의 몸에 밀착하여 끊임없이 괴롭히다가 결국엔 둘 다 파국을 맞게 된다.

<복수형>은 남편에 대한 욕구와 원망이 매우 강렬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이다. 나아가 이러한 내용의 배경에는 여성이 유교적인 관습 하에서의 혼인제도에 대한 비판 및 저항이 상사뱀 설화에 투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등장하는 여성형의 <복수형> 이야기가 모두 기혼 여성이라는 점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다. 이는 이어지는 <포기형>에 등장하는 미혼 여성이 변신한 상사뱀의 태도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② <포기형>

이 유형은 여성이 남성에게 생전에 품은 연모를 풀지 못하고 죽은 후에 뱀으로 변신하여 상대에게 나타나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내용이다. 하지만 앞의 <복수형>에서처럼 상사뱀이 남성을 해코지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조월천과 상사뱀>(7-11권)을 비롯하여 총 8편이 채록되어 있다.²⁵⁾ 이 중에서 <옥천선생과 상사뱀>(7-6권)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4) 이부영(1995),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p.175

25) ①<옥천선생과 상사뱀>(7-6권, pp.656~658), ②<조월천과 상사뱀>(7-11권, p.740), ③<과평윤씨와 상사뱀>(7-14권, p.242), ④<조식선생과 상사구렁이>(8-10권, pp.357~358), ⑤<조남명 선생과 상사뱀>(7-15권, pp.368~371), ⑥<남명과 상사구렁이>(8-2권, p.684), ⑦<정인홍일화>(8-3권, pp.351~357), ⑧<남명선생 전설>(8-4권, pp.242~246),

[사례 4]

옥천선생이 과거를 보고 내려가는 도중에 시골 주막에 묵게 되었다. 그 주막집의 딸이 옥천선생을 보고 한 눈에 반해서 욕정을 품게 되었지만, 옥천선생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옥천선생이 주막집에서 떠나게 되자 주막집의 딸이 그길로 죽어서 상사뱀이 되어 옥천의 뒤를 따랐다. 옥천이 집에 거의 다 와서 이를 알아차리고 상사뱀을 향하여 여기가 어딘데 감히 들어오고 하느냐며 호통을 쳤다. 그러자 그 상사뱀은 눈물 세 방울을 흘리면서 문턱에서 내려오더니 사라졌다. 옥천이 죽자 어디선가 나타난 그 상사뱀이 그의 위패를 감싸고 놓지 않았다.²⁶⁾

[사례 4]는 주막집의 딸이 옥천을 보고 한눈에 반했으나 옥천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죽어서 상사뱀이 되어 그의 뒤를 따라간다. 하지만 옥천의 호령에 맞서지 못하고 그대로 물러나버리는 <포기형>의 유형이다. 서사구조는 다음과 같다.

- a. 주막집 딸이 옥천을 보고 한눈에 반한다.
- b. 옥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c. 주막집 딸이 죽어서 상사뱀이 되어 옥천을 따른다.
- d. 옥천이 고함을 지르자 상사뱀이 사라진다.
- e. 옥천이 죽자 상사뱀이 옥천의 위패를 감싸고 떨어지지 않는다.

[사례 4]는 양반인 옥천과 주막집 딸이라는 두 인물의 신분 차이가 대조를 이룬다. 이와 같은 신분계급의 차이는 앞서 사례로 든 남성 <복수형>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단지 여기서는 남성이 양반이고 여성이 상민이라는 사실이 주목을 끈다.

옥천에게 한 눈에 반한 주막집 딸은 죽은 뒤에 상사뱀이 되어 옥천의 뒤를 따라갔다. 생전의 인식적 전환의 표상인 상사뱀으로 투영되어 주막집 딸은 옥천에게 자신의 존재를 표출하고자 했다. 생전에는 옥천과의 신분차이 때문에 감히 자신의 연정을 나타내지도 못했지만 죽어서 상사뱀으로 몸을 바꾼 처녀는 이미 체면과 도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상사뱀의 정체를 알아차린 옥천의 불호령에 상사뱀은 눈물만 흘리며 사라졌고, 나중에 옥천이 죽자 그의 위패를 감싸고 떨어지지 않았다. 비록 옥천의 고함 때문에 상사뱀이 그 자리를 물러나기는 하였으나 옥천의 죽음 뒤에

26) 『한국구비문학대계』(7-6권), pp.656~658

도 그의 위패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옥천을 잊지 못하는 회한적인 모습이다.

처녀는 상사뱀이 되어서도 생전의 엄격한 반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억눌린 감정을 극복할 수 없었다. 비록 상사뱀으로 그 몸은 바뀌었으나 마치 생전의 모습처럼 양반인 옥천의 고향에 스스로 복종한다. 이는 상사뱀이 되는 주요 원인이 신분계급의 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²⁷⁾ 주목해야 할 점은 여성형의 <복수형>에 등장하는 상사뱀이 남편을 증오하여 해코지를 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것이다.

이를 남성 <복수형>의 공통적인 서사구조와 비교해 봐도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의 상사뱀은 여성의 몸에 밀착하여 떨어지지 않거나 심지어는 하문(下門)에 뿌리를 박고 놔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상사뱀의 속성은 생전에 자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상대에 대한 분노와 갈등을 표출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남자 상사뱀의 행위는 오히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일방적이고도 억눌린 감정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는 생전의 남성과 여성의 신분차이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에 <포기형>에 등장하는 상사뱀의 특징은 남성 상사뱀의 특성과는 거리가 멀다. 생전의 욕구를 극복하지 못해 비록 상사뱀이 되었을지라도 그들은 남성에게 해코지를 하기는커녕 생전의 신분 차별이나 성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특성이 투영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설화 속에서 상사뱀으로 몸바꾸기를 하는 주체에 따라 상사뱀의 속성이 변화하는 것은 설화를 향유하는 민중의 시선 층이 각기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설화에 등장하는 각각의 인물에는 그 시대의 사회상이 반영되기 마련이며, 특히 사회적인 관습과 제도 등은 자연스럽게 이야기 속에 녹아든다. 이는 <포기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여성이 사후에 상사뱀화 되었지만 생전의 신분 차별을 극복하지 못함은 물론 소극적인 태도로 남성의 위패만을 감싸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려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상사뱀 설화의 특징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사뱀으로 변하는 남녀의 주체에 따라 상사뱀의 성격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달리 말하면 남녀가 상사뱀으로 변하는 공통적인 요인은 억눌린 욕망을 제대로 토로할 수 없는 사회적인 제약과 신분의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성별에 따라 상사뱀으로 변한 후의 행위에 남녀의 특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남성 <복수형>의 상사뱀은 여성의 신체를 완전히 지배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반면, 여성 상사뱀은 기혼 여성의 이야기인 <복수형>에서만 남편을 해코지 한다. 오히려 <포기형>과 같은 대다수의 설화에서는 상대 남성의 의지를

27) 김용덕(1998), 앞의 논문, pp.355~358

존중하여 공존을 모색하는 방법을 취하는 점이 남성형과는 매우 대조적인 특성을 보인다. 둘째 남성형의 이야기는 <복수형>이 대다수인 반면에 여성형의 이야기는 상사뱀이 순순히 물러서는 <포기형>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남성의 성에 대한 공격적인 면이 상사뱀 설화에도 투영되어 여성의 육체를 지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이 또한 유교적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역할에 따른 사회적 관습과 인식이 설화에 반영된 이유라고 추론할 수 있겠다.

4. 일본 상사뱀 설화의 분석

『일본의 민담(日本の民話)』과 『일본석화대성(日本昔話大成)』 등에 수록된 설화를 분석한 결과 상사뱀을 모티프로 하는 설화는 『일본의 민담』에 채록된 일명 도조지(道成寺)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도조지 설화는 『大日本國法華經驗記』 하권 제129화 「紀伊國牟婁郡惡女」, 『곤자쿠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의 권14 「紀伊國道成寺僧寫法話求蛇語第三」, 『元亨釋書』, 『道成寺緣起』 등의 문헌에 전해진다. 하지만 다양한 문헌설화에 기록된 것에 비하여 구비전승된 『일본의 민담』에는 단 1화가 채록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조루리(淨瑠璃)나 노(能), 가부키(歌舞伎) 등의 무대예능으로 전승되면서 안친(安珍)과 기요히메(清姬)라고 불리며 현재까지도 꾸준히 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사뱀 설화의 분석에 대한 중요성을 찾을 수 있겠다.

4.1 여성형

①<복수형>

이 유형은 여성이 생전에 남성에게 연모하는 마음을 고백하나 남성이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거절당한다. 이에 분한 마음에 사로잡힌 여성이 자살 후에 상사뱀으로 변하여 남성을 해코지하는 내용이다. 『일본의 민담』에 채록된 제 3권 <안친과 기요히메(安珍と清姬)>의 예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5]

옛날 어느 집에 안친이라는 수행자(山伏)가 방문하자 주인이 그의 딸인 기요히메와 함께 반갑게 맞이하였다. 기요히메는 안친에게 어릴 때 한 약속한대로 이제는 자신을 데려가주라고 말하지만, 안친은 자신에게는 이미 처가 있는 몸이라고 대답하였다. 기요히메는 뒤늦게 안친이 떠난 것을 알고 곧바로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고 마침내 어느 강가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안친의 부탁을 받은 선주(船主)가 기요히메를 배에 태워주지 않자, 기요히메는 바로 강으로 뛰어들어 자살하고 말았다. 그러자 그토록 아름다웠던 기요히메의 몸은 곧 큰 뱀으로 변하더니 곧바로 안친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안친은 기요히메가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도조지(道成寺)로 피해서 큰 종(鐘) 밑에 숨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곧이어 큰 뱀도 그의 뒤를 쫓아오더니 무서운 얼굴을 하고 종을 노려보다가, 종을 칭칭 말고 꼬리로 종을 몇 번이나 두드렸다. 그 큰 뱀이 사라진 뒤에 스님들이 나아가 그 종을 살펴봤더니 이미 벌겋게 타버렸고, 종 안에는 안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다만 재만이 남아있었다.²⁸⁾

[사례 5]는 한 남성을 사모한 여성이 자신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자 죽어서 뱀으로 변해 그 남성을 끝까지 쫓아가 남성이 숨어있는 종을 맡아서 결국 태워 죽인다는 내용이다. 서사구조는 다음과 같다.

- a. 어느 집에 수행자가 방문한다.
- b. 딸은 수행자에게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다.
- c. 수행자가 자신에게는 이미 처가 있다고 말한 뒤 떠난다.
- d. 딸이 투신자살하여 뱀으로 변한 후에 수행자를 쫓는다.
- e. 수행자가 절로 들어가 종속에 숨는다.
- f. 뱀이 수행자가 숨어 있는 종을 칭칭 말고 때리다 사라진다.
- g. 종이 불타고 수행자도 재로 변한다.

사람이 죽어서 뱀으로 변하는 것은 원한의 성격이 상사의 한(恨)으로 죽는 것과 같이 본능적인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융(Jung)에 의하면 뱀은 ‘리비도(Libido·정신적 에너지)’의 상징이며 감정적 특색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루지 못한 사랑이 질투로 발전될 때 거기에는 이미 진정한 사랑이 아닌 지배욕이 고개를 든다는 것이다. 이때 여자는 남자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는 집념에 사로잡힌다고 한다.²⁹⁾ [사례 5]에서 기요히메는 안친의 방문에 몹시 흥분하여 이제는 자신과 함께하리라는 기대감을 갖는다. 하지만 안친이 이미 결혼한 몸임을 밝히고 길을 떠나자 기요히메는 질투심에 불타올라 안친의 뒤를 무작정 따른다. 그러다가 강물에 이르러 그 강을 건널 수 없게 되

28) 『日本の民話』(제3권), pp.93~95의 내용이며 지면의 한계 상 원문을 기재하는 대신 필자가 번역하여 요약하였고, 이하의 사례문도 이와 동일함.

29) 이부영(1995), 앞의 책, pp.183~184

자 투신자살하였고 기요히메의 몸은 곧바로 큰 뱀으로 변하게 된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마음속에 응어리가 맺히더라도 체면과 도리를 생각하여 스스로를 자제하지만 숨이 떨어지면 그 즉시 응어리만 남아서 마음 속 깊이 담아두었던 꾀스한 마음이 원혼을 형성한다고 한다.³⁰⁾ 질투로 끓어올랐던 기요히메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안친에 대한 서운함과 꾀스함으로 물에 뛰어들고 만다. 상대에 대한 원망이 자살로 이어지자 기요히메의 아름다웠던 몸은 곧바로 큰 뱀으로 변하게 된다.

욕망과 분노의 화신인 상사뱀으로 몸을 바꾼 기요히메는 절에 있는 종속에 숨은 안친을 발견하고 결국 종을 말아서 녹여버린다. 그 안에 있던 안친도 마침내 한줌의 재로 변한다. 남자에게 배신당한 한 여인의 강렬한 분노가 내뿜는 열기는 상사뱀으로 상징화되어 큰 종을 녹일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한 것이다. 연모로 시작한 한 여인의 마음은 상대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하여 자신은 물론 사모했던 상대까지 파멸로 이르게 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분석심리학에서의 리비도의 성격과 불교적 관점에서 지적한 원혼의 형성과정의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상사뱀의 특성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

이번에는 상사뱀 설화의 원형으로 여겨지는 『곤자쿠모노가타리슈』의 「紀伊 国道成寺僧法話求蛇」의 내용과 비교하기로 한다.

[사례 6]

전생에서의 인연으로 이생에서 과부와 젊은 승려로 만난 두 사람은 과부의 일방적인 애욕으로 인하여 결국엔 둘 다 죽게 되지만 다시 뱀으로 환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노승의 꿈에 나타나 『법화경(法華經)』을 서사(書寫)해서 자신들이 사신(蛇身)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이 말을 들은 노승은 불심이 일어나서 『법화경』의 서사를 마치고 사재(私財)까지 털어서 많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다. 그러자 노승의 꿈에 여자와 남자가 나타나서 예를 올리며 여자는 도리천(忉利天)으로 태어났고 남자는 도솔천(兜率天)으로 가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노승에게 전해들은 사람들은 이후로 『법화경』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으며, 여자의 악심(惡心)은 이로 인해 끈질기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게다가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게 되었으며, 여자의 접근은 피해야만 한다는 말이 전해지게 된 것이다.³¹⁾

불교설화의 목적은 불력의 위대함을 설파하는 동시에 불교의 당위성을 전파

30) 우롱큰스님(2000), 「죽음 뒤의 세상」, 『법공양』, 불기2543년 1월호, 불교신행연구원, p.24

31) 馬淵和夫 外 校注・訳(1999), 『今昔物語集1』, 小学館, pp.406~412의 내용을 필자가 번역하였음.

하기 위한 일종의 포교설화의 성격이 짙다. [사례 6]은 앞의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설화이면서 수행자에게 여자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까지도 나타낸다. 과부의 일방적인 애욕으로 인해 이생에서 인연을 맺은 젊은 승려와 과부는 뱀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지만 이들은 노승의 꿈에 나타나 『법화경』의 서사를 부탁했고 노승은 흔쾌히 이들의 부탁을 받아들여 그들을 도리천과 도솔천으로 천도한다. 이후 노승에게 이 말을 전해들은 불자들은 『법화경』을 진심으로 신봉하게 되었으며, 여자의 악심은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따라서 수행자는 여성이 뱀과 같이 교묘하고 애욕에 집착한다는 것을 인지하여 늘 여성을 경계해야한다는 교훈을 준다.

그렇다면 여인의 굴절된 욕망에서 파생된 상사뱀과 여성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것일까. 일본문화에서 원시시대의 여음 숭배이상으로 일반적인 것이 사신(蛇神) 숭배였다. 일본의 기층문화인 조몬토기에서 볼 수 있는 뱀의 얼굴이나 뱀 문양은 조몬시대의 사신 숭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³²⁾ 나아가 나카무라 데리(中村禎里)는 ‘인간과 동물의 혼인’은 고대 신화의 세계에서 신(神)을 상징하는 동물과 인간과의 통혼(通婚)을 나타내는 것에서 파생된 이야기이며, 이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묘사하는 최초의 상징적인 행위라고 지적하였다.³³⁾ 글머리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이류혼인의 주된 동물은 바로 뱀이었을 정도로 뱀은 일본인에게 매우 신성시되는 상징적인 동물이었다.

그렇지만 일본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여음 숭배와 사신 숭배는 음사(陰邪)로 간주되어 배척당하기 시작했고 뱀의 위치는 축생, 즉 미물로 영락(零落)된다. 그래서 일본 최초의 설화집인 『니혼료이키(日本靈異記)』에는 뱀은 더 이상 신이 아니며, 여인의 여음을 침범하는 뱀은 가차 없이 퇴치되거나 죽임을 당하기에 이른다.³⁴⁾ 이러한 내용은 이른바 고대시대에 신성혼의 대상이었던 뱀의 신성성이 일부 사라지고, 뱀의 생태학적인 특성에 기인한 남근의 모습만을 연상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도조지의 이야기에 이르러서 뱀의 정체성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여성성의 표상인 여음의 전략을 상징하며, 더불어 사신(蛇神) 또한 여인의 애욕과 애집으로 표현되는 것은 불교의 여성관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애욕을 품은 여인이 죽은 후에 사신(蛇身)으로 변하는 것과 같이 불교에서 뱀을 배척해야할 대상으로 묘사한 법화경에는 “뱀은 유혹이요 애욕이다.”라고 경계하고 있다. [사례 6]에는 애욕으로 죽은 남자가 뱀으로 환생한다는 사실과 뱀의 몸을 벗어나기 위해서 법화경의 서사를 부탁한다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32) 吉野裕子(1994), 『十二支 - 易・五行と日本の民俗』, 人文書院, pp.140~142

33) 中村禎里(2006), 『日本人の動物観, 変遷譚の歴史』, BNP, pp.75~78

34) 김중덕 외 지음(2008), 『그로테스크로 읽는 일본문화』, 책세상, pp.46~54

있다. 나아가 범화경의 서사를 마치자 두 남녀가 천인(天人)으로 거듭나는 내용까지 곁들여 범화경의 위력을 표명하여 민중을 계도하려는 포교설화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사례 5]의 서사구조는 [사례 6]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두 사례에서는 남성이 승려나 수행자이기 때문에 여성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지만 여성의 일방적인 애욕으로 인해 남성은 피할 수 없는 고초를 겪게 되는 동일한 서사구조이다. [사례 6]에서는 과부의 굴절된 욕망으로 인해 승려와 과부 둘 다 뱀으로 환생을 하고 [사례 5]에서는 상사뱀으로 변신한 여성에 의해 남성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 두 사례에 나타나는 뚜렷한 공통점은 바로 여성이 남성을 파멸로 이끄는 주체이며, 여성이야말로 뱀에 비유될 정도의 끈질긴 집착과 사악함이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수행자들에게 여성은 단순한 경계를 넘어선 극심한 배척의 대상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사례 5]에서는 [사례 6]과 같이 범화경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포교설화의 특징이 자취를 감춘다. [사례 6]에서는 잘못된 인연으로 인해 뱀으로 태어난 과부와 승려가 자신들을 위해 범화경을 서사해준 노스님의 덕분으로 도리천과 도솔천으로 천도를 받는다. 범화경의 서사만으로도 뱀과 같이 미천한 축생에서 천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범화경의 존재가 그만큼 위대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교화의 충분한 가치를 느끼게 해준다. 포교설화로서의 가치가 가장 빛을 발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포교설화의 특징은 세월이 더하면서 불경의 위대함이나 민중을 계도하려는 불교설화 본래의 목적이 상실된다. 이윽고 [사례 5]와 같이 빛나간 욕망의 화신인 상사뱀으로 변신하는 여성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여성의 끈질긴 집착이 곧 상사뱀화 되는 것에 전승층의 시선이 집중된다. 이는 세대를 전승할수록 민중의 흥미를 끌게 되면서 다양한 무대예능의 소재가 되었고, 나아가 여성은 집착이 강해서 상사뱀이 되기 쉬운 존재라는 인식으로 정착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5. 마무리

상사뱀 설화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인 욕망의 표현에 대한 각종 사회제도와 규율에 저항하는 인간의 그로테스크한 상상력의 산물이다. 여기에 뱀에 대한 시대적인 인식의 변화와 종교의 당위성이 결합되어 인간과 뱀의 공생의 한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상사뱀 설화가 형성될 수 있었던 뱀의 특성은 생태학·생물학적인 면을 들 수 있다. 첫째 외형이 남근(男根)과 비슷하며, 두부(頭部)는 여음(女陰)을 상징하여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졌다. 둘째 탈피에 의해 거듭 태어나 생명을 갱신하는 모습은 뱀을 영원한 생명체로 여기게 되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뱀은 이류혼인담의 주된 주인공의 역할과 함께 상사뱀 설화의 주체로서 민중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한일 상사뱀 설화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채록 화수가 한국 35화, 일본 1화에서 보듯이 먼저 화수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단 1편인 일본 상사뱀 설화가 여성 <복수형>인 반면에 한국의 <복수형>은 남성이 주체인 상사뱀이 대다수이며 그 행위도 여성의 신체를 구속하여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매우 파괴적이다. 이를 일본 남성 상사뱀 설화가 단 1화도 발견되지 않는 것과 비교해보면 상사뱀을 빗대어 표출하고픈 한국 남성의 억눌린 욕망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사뱀으로 변하는 계층이 주로 머슴이나 중과 같은 하층 신분임을 감안할 때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더욱 분명해진다. 신분계급의 차이로 인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강한 저항과 분노가 상사뱀의 몸짓으로 설화의 세계에서는 마음껏 표출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반해 비교 대상인 일본 남성 <복수형>이 단 1편도 없다는 사실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며 이는 설화를 비교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한다. 가장 먼저 가능한 유추는 고대부터 자유로웠던 일본인의 개방적 성관념이다. 일본은 헤안(平安) 시대까지만 해도 남녀 모두 자유로운 중복혼이 허용되었고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인 의무가 되지 않았다. 특히 남자가 여러 여자 집을 다니며 여자와 함께 밤을 지낸 뒤에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하는 풍습은 메이지 시대에 금지령이 내려져도 1900년대 초반까지도 농촌 축제에서는 공공연히 시행되곤 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상황과 유교를 국치의 이념으로 삼아 엄격한 신분계급의 잣대와 남녀의 유별을 강조했던 조선의 관습을 비교해 본다면 굴절된 욕망의 화신인 상사뱀이 한일의 어느 쪽에서 활개를 칠 수 있을 것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겠다.

일본의 유일한 상사뱀 설화인 여성 <복수형>과 한국 상사뱀 설화인 여성 <복수형>과 <포기형>을 비교해 보면 한일 설화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진다. 일본 <복수형>은 여성이 수행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일방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자 상대에 대한 자제할 수 없는 분노가 상사뱀으로 표출되었다. 이로 인해 여인의 음욕은 무서운 집착을 낳을 수 있으니 수행자는 이를 경계삼아 수행에 정진해야 한다는 포교설화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 <복수형>은 총 3화가 채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상사뱀으로 변신하는 주체가 모두 기혼 여성이라는 것이다. 공통적인 서사구조는

아내가 병들어 죽은 후에 상사뱀으로 몸을 바꿔 자신에게 무심했던 남편을 해코지 한다. 이를 8화가 채록된 <포기형>과 비교해 본다면 매우 큰 차이점이 드러난다. <포기형>의 등장인물은 모두 미혼 여성이며 이들은 상사뱀으로 변신한 후에도 상대 남성의 고향에 기가 눌러서 자취를 감출 정도로 대단히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 두 유형에 출현하는 상사뱀의 성격을 분석해보면 얼핏 대조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여기에서도 유교적인 관습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공통점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복수형>에서 아내가 변신한 상사뱀이 남편을 응징하는 것은 유교적인 관습 하에서의 혼인제도에 대한 당시 여성들의 강한 비판 정신이 응축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오로지 남편만을 바라봐야 하는 유교적인 관점의 여성과 ‘중혼제’나 ‘요바이(夜這い)’와 같이 남녀 모두에게 개방된 성문화 사회의 여성 사이에서 과연 어느 쪽이 억눌리고 빗나간 욕망을 품을 수 있겠는가.

나아가 <포기형>의 미혼 여성들이 상사뱀으로 몸을 바꾸어 상대 남성에게 나타나서도 제대로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지 못하는 행위 또한 유교적인 관습에서 빚어진 남녀 차별 및 신분계급의 차이가 그대로 투영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처녀가 굴절된 욕망의 화신인 상사뱀이 되어서도 남성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는커녕 남성의 고향에 놀라서 순순히 물러서는 소극적인 태도가 방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여성 <포기형>은 일본 여성 <복수형>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른데, 이는 한국은 유교적인 관습과 신분계급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일본은 포교설화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면 한일 여성 상사뱀 설화에서도 공통점이 발견된다. 양쪽 모두 남성의 시각에서 설화가 구성되었다는 점이 강하게 느껴진다. 한국 여성 <포기형>에 등장하는 상사뱀의 행위는 주체적이지 못하고 남성의 태도에 절대적으로 순종적이다. 상사뱀이 굴절된 욕망의 화신임을 감안한다면 뱀으로 변신한 후에도 남성의 고향에 굴복할 정도로 움츠러드는 행위는 상사뱀 본래의 속성이 아니다. 여기에도 다분히 남성적인 시각이 중심을 잡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일본 여성 <복수형>에도 남성 편향적인 시각을 분석할 수 있다. 상사뱀 설화에서 수행자인 상대 남성을 응징하기 위해 복수의 화신인 상사뱀으로 변신한 주체는 바로 여성이다. 즉 수행자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 곧 여성으로 표상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은 과연 설화 속의 묘사처럼 뱀과 같이 집착과 애욕이 강해서 수행자를 과멸로 이끄는 주체일까. 이를 원시시대의 여음숭배와 사신숭배를 고려한다면 이 사실은 신뢰성이 매우 희박해진다. 하지만 여음과 사신의 쇠락이라는 시대적인 상황과 이 설화의 근원이 포교설화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이 수행자에게 경계의 대상으로 전락되었으며 그 상징성이 뱀으로 표상화 되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뱀의 생태학적인 면과 결부된 여성의 집착을 부각시켜 불교의 당위성을 전파한 것은 남성 입장에서 본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이 드러난다.

논의를 정리하면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전승되는 상사뱀 설화는 한국은 유교적인 관습과 사회적인 신분 차별에서 비롯된 제한된 욕망과 규범에 대한 저항의 표상과 남성 중심성이 두드러진다. 이에 비해 일본은 여성=상사뱀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상사뱀의 집요함과 끈질긴 애착을 여성에게 비유하여 수행자에게 여성을 경계해야한다는 포교설화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여성을 곧 상사뱀으로 둔갑시킨 남성 중심성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이는 한일 상사뱀 설화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이 논문이 한일 남녀의 욕망에 대한 다양한 설화를 발굴하여 비교하는 차후의 연구과제와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강진욱(2000), 「상사 뱀 설화의 ‘몸 바꾸기’를 통해 본 욕망과 규범의 문제」, 『고전문학연구』제18집, 한국고전문학회, pp.115~148
- 김용덕(2000), 「淸平寺緣起說話考」, 『한양어문연구』제6집, 한양어문학회, pp.5~32
- 김종덕 외 지음(2008), 『그로테스크로 읽는 일본문화』, 책세상, pp.46~54
- 박종성(1991), 「사신(蛇神) 설화의 형성과 변이」, 국문학연구 제10집,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문학 연구회
- 이현홍(2004), 『일본문화 접촉과 한국문학』, 한국문화회 엮음, 세종출판사
- 崔仁鶴 著(1994), 『韓國民譚의 類型 研究』, 仁荷大學校出版部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1980), 『韓國口碑文學大系』(총82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황패강(1996), 『日本神話의 研究』, 지식산업사, pp.135~164
- 石上七靫(2003), 『十二支の民俗伝承』, おうふう, pp.93~109
- 笹間良彦(1989), 『蛇物語 -その神秘と伝説-』, 第一書房
- 井本英一(2000), 『十二支動物の話』〈子丑寅卯辰巳篇〉, 法政大学出版, pp.295~

- ・川森 博司(2000), 『日本説話の構造と語り手』, 大阪大学出版会, pp.66~103
- ・関敬吾(1987), 『日本昔話大成』(全12巻), 角川書店
- ・田阪正則(2004), 「日本古典文学에 나타난 蛇(뱀)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05), 「道成寺説話と韓国口承説話 想思蛇との比較」, 日語日文学研究 第55輯, pp.68~82
- ・日本昔話学会(1989), 『昔話と婚姻・産育』, 三弥井書店, pp.57~73
- ・馬淵和夫 外 校注・訳(1999), 『今昔物語集1』, 小学館, pp.406~412
- ・未來社 編(1974) 『日本の民話』(全26巻) 未來社
- ・吉野裕子(1994), 『十二支 - 易・五行と日本の民俗』, 人文書院, pp.140~142
- ・_____ (2004), 『十二支』, 人文書院, pp.137~156

要 旨

想思の蛇の説話というものは、生きていた時に自身の一方的な慾求を解けないままに死んだ後に想思の蛇に変身して相手に現れてしつこい恋を強要する物語である。韓日の両国で同時に伝承される想思の蛇の説話は時代的な状況と特性が反映されてそれぞれの独特な想思の蛇の物語を作り出した。

韓国の想思の蛇の説話は登場話数が35話であり、想思の蛇に変身する主体であると男女によって想思の蛇の行為が明らかに区別することができる。男性の想思の蛇の説話は<復讐型>と<失敗型>に分けられて、前者のタイプは18話と、後者のタイプは6話と、<復讐型>が圧倒的に多く現れる。<復讐型>の特徴は、女性の肉体を完全に支配したい慾望を現れるもので、ついに二つは共に破局を迎える。<失敗型>の特徴は、男性の即興的、視覚的な慾望が説話に反映されてもので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

女性の想思の蛇の説話は<復讐型>と<抛棄型>に分けられて、前者のタイプは3話と、後者のタイプは8話である。特徴は、女性は死んだ後に想思の蛇に変身しても相手にしつこい恋を強要するのはおろか、相手の男性の反応によって支配される。これは順従と忍耐が一番大きな徳で思われて儒教的な慣習によって想像の世界である説話の中で慾望の化身である想思の蛇にもその規律がそのまま適用されると推論できる。

日本の想思の蛇の説話は登場話数がただ1話ばかりで、女性の残酷な復讐心が強く現れる<復讐型>である。これは韓国の想思の蛇の説話の主体が男性であることを考慮すると、非常に対照的である。本稿では、このような話が生まれるようになった背景を、説話の原型と言われる「紀伊国道成寺僧法話求蛇」の説話を分析した結果、日本の想思の蛇の説話はその根源が布教説話であることを指摘した。

韓国の想思の蛇の説話の特徴は、儒教的な慣習と社会的な身分の差から基づいた制限な慾望と規範にたいする抵抗の表象が目立っている。一方、日本は女性=想思の蛇という等式が成立できるほど想思の蛇のしつこい愛着を女性にたとえて、修行者に女性を警戒しなければならない仏教の当為性を伝播するための一種の布教説話の性格が明らかに現れている。

キーワード：想思の蛇，韓日の想思の蛇の説話，儒教，慣習，仏教，布教説話

투 고 : 2013. 11. 30
1차 심사 : 2013. 12. 14
2차 심사 : 2014. 1. 4